
2022

Porter Prize Excellence in CSV

제9회 CSV·ESG 포터상 우수기업 사례집



한국전력거래소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으로
환경변화 선도, 국민과의 따뜻한 동행 및 가치 확산



한국 RE100 협의체 이행지원, 기업간 협력 및 MOU 신사업 추진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Process

21년 8월 CEO ESG 경영비전 및 경영철학을 수립하고 “Change to the World Best ESG Platform”를 선포하였다. 22년 7월부터 ESG경영 추진 TF 및 ESG경영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행을 총괄하고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22년 7월에는 부서별로 반기 단위 ESG 추진실적을 CEO가 직접 점검하여 22년 상반기에는 총 25개팀, 39건의 ESG 추진실적을 집계했다. 21년 10월부터는 이사회 직속 ESG 전략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전략방향 심의 및 의결하고 있으며 22년 6월부터 ESG경영팀이 이행업무를 총괄하고 ESG경영 추진 TF를 통해 실적 점검 및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한업무협약(MOU)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협업 과제를 수행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소통채널을 활용하고 지역협업 추진 체계를 완성하여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Activities

1) MOU를 통한 동반성장:

(동반성장위원회-협력 중소기업 자율협약)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과 삼자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대금 제대로 주기3원칙을 준수하고 전력산업 참여 중소기업과의 MOU체결을 통해 전력산업 부품을 국산화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이로써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기관의 ESG경영을 강화한다.

(한국RE100협의체 간 직접 PPA활성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MOU를 공동지원하기 위해 한국 RE100협의체 간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활성화했다.

(전력시장 선진화 추진단) 전력시장 선진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를 통해 이는 전력분야 ESG 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참여자 협의체 운영으로 전력시장의 혁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한전 및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참여하는 석탄발전상한제 등 거래소 운영제도 관련 실적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민간발전사 소통창구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MOU 체결) “자동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신산업 창출, 혁신(자동차 검사소 보급, 에너지심표 사업)의 노력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MOU』를 체결하였다.

2) 협력 중소기업 대상 ESG경영 특강: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 모델 구축하고 기관 ESG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경영 특강을 진행하여 ESG추진 전략 수립 및 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3)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커피박 10톤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비료 5,000포대를 생산하고 지역 내의 다문화 농가를 대상으로 기부를 진행하여 전남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역 협업 기반의 친환경 사업 고도화로 탄소 중립 실천 및 확산



Performance(성과)

한국전력거래소가 숨어있는 태양광 반영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기관 간의 협력을 주도하여 미계량 태양광 DB를 고도화한 결과 누락된 자가용 태양광 설비 0.9W를 발굴하였고 미계량 태양광을 DB에 반영하여 미계량 태양광 반영 최대전력량 정확도가 0.9%p 상승했다. 또한 온실가스 비용을 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으로 친환경 에너지(탄소미배출) 발전 수익이 2,119억 원 증가했으며, 석탄 배출권 비용 정산금을 2,800억 감소시켰다.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으로는 매립쓰레기인 커피박 재활용하면서 3톤가량의 온실가스 발생을 예방하고 중소기업 비료업체의 매출향상에 기여했다. 이 사업에 나주자활센터가 참여하여 근로빈곤층 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3년간 120억 규모의 자율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KPX형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2020년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타 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소 시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다.

Future(전망)

22년 7월 5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수급계획 체계 개선하는 등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전력산업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설명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 필요성의 이해도 제고하고 있다. 시장참여자 확대를 통한 전력산업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전력시장 5천 회원 및 REC 시장 10만 회원시대가 개막하였고, 소규모 시장회원 대응 “분산·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를 도모해 나간다. 또한 신재생시장 위원회를 개최, 수요자 중심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참여자간 지위, 역할 등 세부제도를 설계하여 RE100 수단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직접PPA 도입을 통한 RE100 이행수단을 확보하였으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 직접 PPA고시를 개정하였다.

커피박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점을 발굴하여 향후계획을 세웠으며 12월까지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성과 공유를 확산할 예정이다. 지역 내 커피박 펠릿 제조업체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바이오연료 제작·활용 등 커피박 재활용 방안을 확대하여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주관 22년 4분기에 발행될 “정규직 전환 사회사 운영 사례집”에 재선정되어 정규직 전환 혁신사례를 재전파해 나갈 것이다.